

# 무노조 협정까지 깨고...GGM 파업 실리도 명분도 없다

〈연간 35만대 생산까지〉

### 임직원 650명 중 220여명 노조원...쟁의행위 투표 85.97%로 가결 전국 첫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위기...지역 경제계 중단 목소리

지역 각계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동조합 쟁의'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GGM은 지역 노동계·경제계·시민사회·광주시(이하 노·사·민·정)가 머리를 맞대고 진통 끝에 탄생한 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리로, 출범 당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작성, 35만대 생산 이전까지 임금과 근로 여건을 노사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입사 당시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까지 작성한 일부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광주 노·사·민·정이 작성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오점을 남기거나 현대자동차 등 투자자 등과의 신뢰에 금이 가는 등의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노조가 35만대 생산까지 명분없는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 85.97%로 가결됐다. 조합원 222명 중 202명이 참여해 190명이 파업에 찬성한 것이다. GGM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선것은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두고 장소와 시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업무시간에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교섭하자는 반면, 노조측은 근무시간내 사내에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GGM 사측과 노조측의 갈등은 올 7월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올초 GGM의 일부 직원들이 2개의 노동조합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사측은 2개 노조 모두와 교섭을 할 수 없으니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갖는 노동조합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사이 2개 노조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 지난

7월 금속노조 산하에 가입하였다. 이후 노조는 단체교섭에 나섰으나 교섭 장소와 시간에 이견을 두고 사측과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까지 가결된 것이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으며, 최근 지노위 주관 하에 두 차례에 걸쳐 조정 회의를 거쳤으나 노사 양측은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파업에 돌입한다면 GGM은 물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염려된다. 당장 GGM은 광주형일자리 모델로 적정한 임금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광주시가 1대 주주로 나섰고 현대차와 지역 기업들의 투자로 탄생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기업과는 달리 일종의 민·관 합작법인이며, 이윤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또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전제로 현대자동차가 캐스퍼 생산을 GGM에 위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공장을 만들어 자체적인 생산·유통·판매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투자자와 현대자동차와의 '신뢰'가 무너지면 GGM은 영속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사실상 35만대 생산 전까지 노동조합 결성 없이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공장 가동 3년만인 올 초 일부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애시당초 노동조합 결성을 막을 수 없어 협정서에 완곡한 표현으로 노조 결성을 잠정 연기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노조 참가자들은 상생협약에서 무노조·무파업 강제 조항이 없다는 논리로 노조 활동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GGM 노동조합 결성은 과거 타 제조업체에서 노동조합 경향이 있는 이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회장을 맡고 있는 A씨도 과거 르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생산동에서 캐스퍼 EV 조립 공정라인에 올라온 차량들이 조립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삼성(현재 르노 코리아)의 노동조합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 인원 또한 GGM 전체 임직원 650명 중 220여명 수준으로 과반을 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GGM 임직원 과반 이상은 노동조합원이 아니며 상생협약서 준수에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GM 노조는 회사의 발전과 성장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GGM은 지난해 현대차로부터의 내년도 수주 물량 확보를 앞두고 최근

캐스퍼 EV의 흥행에 힘입어 2교대 근무를 하겠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했다. 이때 임직원들의 동의서를 첨부했는데, 노동조합 대다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사실상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반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노조는 만일 판매 저조에 따라 주문량이 감소할 경우 고용불안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장 지역 경제계도 노동조합의 활동에 심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광주상의는 "노사 갈등

이 심화될 경우 이달 중 예정된전기차의 해외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GM의 존립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GGM 관계자는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GGM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국 회사의 성장을 저해하는 해사 행위를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전남 4곳 '로컬상권 페스티벌 위크'

### 나주 10~12일, 여수 20일 열려

지역 로컬 브랜드를 키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가 나주·여수 등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간 업체들이 주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2024년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사업'에 따라 전남 4개 지역에서 '로컬상권 페스티벌 위크(WEEK)'가 진행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해 유망 기업을 키우고 이를 중심으로 상권 거버넌스를 구축,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상권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권 페스티벌 개최 비용 등을 지원받은 대상 기업들은 보성(5일), 강진(6일)에 이어 나주(10~12일), 여수(20일)에서 로컬상권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상권별 축제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지역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나주의 경우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3917마중, 이화에 월백하고'를 주제로 페스티벌이 열린다.



지난 5일 보성에서 열린 '숲 속 농부장(FOR:REST)' 페스티벌. 보성지역 생산자가 참여해 친환경 로컬 제품과 농식품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 제공>

전통 가옥에서의 고백 버스킹, 배꽃 작품 전시회, 로컬 프리마켓, 나주읍성 전통 인력거 로컬 트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여수에서는 오는 20일 '장성마을 상권 축제·동마켓'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벼룩시장, 커피 테이스팅키즈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보성지역 생산자가 참여해 친환경 로컬 제품과 농식품을 소개하는 '숲 속 농부장(FOR:REST)', 강진의 청년 창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마켓 등이 참여한 '우리들의 성장, 꼬마장' 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로컬상권 페스티벌 위크가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지역 상권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성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등을 발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최고 숙련 기술인 '전남도 명장' 찾습니다

### 기계설비·식품가공 등 38개 분야

전남도는 9일 "지역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인을 찾아 명장으로 대우하기 위해 2024년 전라남도 명장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명장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 기술을 발전시키며 전수토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계설계, 선박설계, 전기, 식품가공, 제과·제빵 등 38개 분야에서 연간 5명 이내(분야별 2명)로

선정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지연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기준 전남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도내 산업체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으며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기술인 등이다.

전남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초빙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

사, 2차 현장실사를 추진하고 명장 심의위원회의 3차 면접심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전남도 명장 칭호와 함께 명장 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연 100만원씩 5년간 총 500만원의 기술장려금이 지원된다. 신청서 서식과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전남도 명장은 최고 숙련 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술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 숙련 기술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거래액 24% 급감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액이 지난 8월보다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0.50% 낮추는 '빅컷'에 나서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중동발 리스크 등 국제 경제 악화로 인해 주식 거래가 다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4년 9월 광주·전남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지역 투자자들의 매수거래대금은 2조5335억원으로 전월(3조3330억원) 대비 7995억원(23.9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도거래대금도 3조1986억원에서 2조4328억원으로 7658억원(23.94%) 줄었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

모두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코스피 매수거래대금은 1조6246억원으로 전월(2조659억원)보다 3819억원(19.03%) 줄었고, 매도거래대금은 1조5415억원으로 전월(1조9006억원)에 견줘 3591억원(18.8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매수거래대금은 31.48% 줄어 9088억원, 매도거래대금 역시 31.33% 감소해 8913억원을 기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 11~12일 충장로 일대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이 게임 산업의 글로벌화 및 발전을 위해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한다.

진흥원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등 충장로 일대에서 '2024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GGDC)'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K-GAME'의 새로운 시작, 광주'를 주제로, 국내외 게임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미래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국내외 게임업계 대표 기업, 게임 단체, 업계 종사자, 예비개발자 등이 광주에 한 데 모여 본인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컨퍼런스 개막식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전일빌

딩 245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되며, 정동진 원스토어 대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틀간 40여개의 업계 전문가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관람객을 위한 ▲게임 체험 쇼케이스 ▲코스프레 참여형 이벤트 ▲게임잡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럭키 드로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컨퍼런스 사전 등록은 오는 10일 오후 5시까지 GGD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게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가 K-콘텐츠를 선도하고, 관련 기업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인력양성협의체 회의'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 '2024년도 제2차 지역인력양성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인력양성협의체는 지역 내 인력 및 직업훈련 수급분석을 통해 직업훈련을 연계하는 역할과 훈련 기회 강화를 위해 인력양성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인자위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해 진행한 '2024년도 지역 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근거한 내년도 훈련수요 전망 추정치와 함께 내년도 양성 및 향상훈련 과정 개발에 대

한 토의가 이뤄졌다. 광주인자위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면서, 자동차부품, 인공지능 등 광주시의 산업육성 정책 또한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후형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처장은 "2024년 광주지역 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한 전문적인 훈련 과정 개발을 통해 지역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4분기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 경기전망 악화

### 전망지수 전 분기보다 2P 하락

올 4분기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경기전망이 전분기보다 2포인트 감소하며 기준치를 밑돌았다. 9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지수는 '85'로 조사돼, 기준치(100)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경기전망은 전분기(87)보다 2포인트 감소했으며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9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광주상의는 야외활동이 줄어드는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는 데다, 고물가·고금리 기조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과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간 경쟁까지 심화되면서 체감경기가 줄어든 것으로 봤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그 미만이면 반대를 뜻한다.

업체들은 다음 분기 가장 우려되는 경영 애로사항으로 '소비심리 회복 지연'(32.0%)을 꼽았으며, '인건비, 물류비 등 비용 부담'(25.6%),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채부담 가중'(19.1%), '시장경쟁 심화'(10.6%), '중국 전자상거래 국내 시장 영향력 확대'(8.5%), '상품 매입가 상승'(2.1%) 등이 뒤를 이었다.

업체별로는 대형마트(75→100)와 백화점(100 동결)은 비교적 양호했으나 편의점(94→76)과 슈퍼마켓(82→73)은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